

잡아함 122. 중생경

날짜: 12월 2nd,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751>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구라산에 계시었다. 때에 시자 비구 라다는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이른바 중생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라다에게 말씀하시었다.

“물질에 집착하고 얽매는 것을 중생이라 부르며,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집착하고 얽매는 것을 중생이라 부르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었다.

“라다여, 물질의 경계는 마땅히 흠어 버리고 무너뜨리고 없애 버려야 하며,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의 경계는 마땅히 흠어 버리고 무너뜨리고 없애 버려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애욕을 끊어 애욕이 다하면 괴로움이 곧 다할 것이니, 괴로움이 다한 사람은 괴로움을 본 사람이라고 나는 말하느니라. 비유하면 부락의 소년 소녀들이 장난으로 흙을 모아 성이나 집을 만들어 놓고 마음으로 항상 사랑하고 집착하여 사랑이 끝이 없고 욕망이 끝이 없으며 생각이 끝이 없고 안타까움이 끝이 없이 언제나 사랑하고 즐겨하여 지키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내 성이다. 이것은 내 집이다’라고 하다가도 만일 그 흙무더기에 사랑이 다하고 욕망이 다하며 생각이 다하고 안타까움이 다하면 곧 손으로 파헤치고 발로 차서 허물어뜨리고 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라다여, 물질을 흠어 버리고 무너뜨리고 없애 버리면 사랑이 다할 것이니 사랑이 다하므로 괴로움이 다하고, 괴로움이 다하므로 괴로움의 끝을 보았다고 나는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라다 비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